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연구

조 인 숙*

목 차

- | | |
|---------------------|------------------|
| 1. 서 론 | 3. 학위논문의 인용실태 분석 |
| 2.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의 가치 | 4. 결 론 |

1.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정보사회의 산업구조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며, 기술과 지식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또한 고도화하고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도 물론 그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내용이 변화되고 대학은 정보사회의 중심이 되며 그 기능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활동이 고도로 전문화, 자동화되므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학원 교육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원 학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 성과인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학위논문 생산의 급증으로 도서관에 들어오는 학위논문의 양이 최근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대학과 전문도서관의 학위논문관리 담당자들은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다.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은 다른 종류의 자료에 비하여 매우 세분된 주제를 다루어 정리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학위논문에 대한 정확한 이용도 조사나 이용자들의 접근 및 검색행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리 및 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도 그 까닭이 있다.¹⁾ 학위논문이 어떤 이용자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것이 다른 종류의 도서관자료들에 비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형식으로 봉사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 교육의 확충은 한국 고등교육의 확고한 정책이고 앞으로 학위논문의 도서관 유입현상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해결은 시급하다. 본 조사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제 1 단계로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의 가치와 연구자들이 학위논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연구논문 속에 인용된 학위논문들을 분석하여 밝히려는 것이다.

학위논문의 이용상황은 도서관 학위논문 열람실의 각종 이용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질문지법이나 면담법을 사용하여 직접 물어봄으로써,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학위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학술잡지 기사를 작성하거나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에 인용한 문헌들의 분석을 통하여 학위논문이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분야는 문헌정보학분야로 한정하고,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한국에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에 발표된 이 세 분야 논문들 속에 인용된 문헌들이며 이를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논문은 모두 60편으로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발표된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30편과 학회지에 발표된 일반논문 30편이며 이 논문들 속에 인용된 문헌 중 학위논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의 표본은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에 수록된 도서관학, 서지학 및 정보학분야 논문 중 해당연도 리스트의 두번째에 기입된 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논문의 표본으로 도서관학분야는 문헌정보학회의 「도서관학」(1993년부터는

1) 최달현 : 변우열(1985), "학위논문의 정리 및 이용", 도서관학논집, 제12집, p.161-198

“문헌정보학회지”로 변경)지에서 1988년(제 15 집)까지는 연간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두번째와 네번째에 게재된 논문 두편을 선정하였고, 1989년이후부터 반년간으로 발간되어 각호에서 두번째에 게재된 논문을 한편씩을 선정하였다. 서지학 분야는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지가 연간으로 발간되므로 각호에서 두번째와 네번째에 게재된 논문 각 두편씩을, 정보학분야는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가 반년간이므로 각 연도 각 호에서 두번째로 게재된 논문 각 한편씩을 선정하였다. 학회지에서 선정한 일반논문이 석·박사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을 요약한 경우는 그 다음 번에 수록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논문 속에서 인용된 학위논문이 모두 연구자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또 인용된 학위논문만이 이용되었는지는 물론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인용된 논문의 분석결과가 연구자들의 학위논문 이용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박희영(1972)²⁾의 “학위논문의 목록법소고”가 있고 김만석(1981),³⁾ 조호일(1984, 1985),⁴⁾ 윤병태(1984),⁵⁾ 민기남(1985),⁶⁾ 최달현과 변우열(1985),⁷⁾ 윤희운(1987),⁸⁾ 손문철(1987, 1988)⁹⁾ 등이 학위논문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들은 대부분 학위논문의 목록, 분류, 정리, 보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관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본 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위논문 이용실태에 관련된 조사는 행해진 바 없다.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1964년에 의학분야 정기간행물에 인용된 박사학위논문의

2) 박희영(1972), “학위논문목록법 소고”, 도서관, Vol.27, No.11, p.14-15.

3) 김만석(1981), “석·박사 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도서관연구, Vol.22, No.5, p.11-16.

4) 조호일(1984), “학위논문자료의 정리를 위한 조사연구”, 계명연구논총, 제2집, p.45-67.

_____ (1985), “학위논문의 목록기술형식 및 검색방법 고찰”, 도서관학논집, 제12집, p.133-160.

5) 윤병태(1984), “대학도서관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집, p.1-20.

6) 민기남(1986), “학위논문의 관리에 관한 연구 ; 국내 종합대학교 도서관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7) 최달현 ; 변우열(1985), “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 도서관학논집, 제12집, p.161-198.

8) 윤희운(1987),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수집방안”, 도서관학논집, 제14집, p.217-240.

9) 손문철(1987), “대학도서관의 석·박사학위논문 관리체제”, 도서관학논집, p.71-98.

_____ (1988), “석·박사 학위논문 관리에 대한 제문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이용에 관한 레이직(M.Raisig)과 킬거(F.G. Kilgour)의 연구가 있다.¹⁰⁾ 이 논문은 학위논문이 인용을 통하여 기존 문헌으로 동화되는 정도를 연구한 것으로서 182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10년씩을 단위로 분석하였다. 한편 1973년에 보이어(C.J. Boyer)는 생명과학, 응용과학, 순수과학, 행동과학 등 4개의 과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선정하여 그 출판률과 인용률을 조사하였다.¹¹⁾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률은 46.3%가 1회씩 인용되었을 뿐, 53.7%는 한번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의 가치

학위논문 그중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기관으로부터 연구의 독창성이 요청되므로 정보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주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학위논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그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의 지도하에 수행된 학생들의 연구결과로서 해당 분야의 권위라고 인정받는 2명에서 6명정도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연구내용을 심사 평가받기 위하여 제출된 연구보고서이다. 그러므로 학위논문은 새로운 지식 또는 기존 지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일차적인 정보원으로서 정기간행물 기사나 기술보고서와 그 가치에 있어 이론상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의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배포되는 학위논문의 부수가 대개 한정되어 있고 대학간의 교환협정에 의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납본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두 도서관도 학위논문 납본제도가 완벽하지 못하여 누락된

10) L.M.Raisig:F.G.Kilgour(1964), "The Use of Medical Theses as Demonstrated by Journal Citations, 1850-1960".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5, p.100-102.

11) C.J.Boyer(1973), "The Doctoral Dissertation as an Information Source:A Study of Scientific Information Flow". Metuchen : Scarecrow.

학위논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용자들이 학위논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위논문 배포에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미국의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3. 학위논문의 인용실태 분석

학위논문의 이용도를 살펴 보기 위하여 학위논문을 인용한 논문을 두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하나는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학술잡지, 본 조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세 분야 즉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분야의 대표적 학회지에 게재된 기사이다.

인용문헌분석법은 연구자들이 흔히 학술활동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며 선행연구들과의 상호관련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의 문헌 이용률을 조사 분석하며, 문헌 주제와 관련된 주제분야의 정보원을 파악하여 도서관의 수서 및 폐기정책 및 도서관 봉사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학문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1)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

문헌정보학의 분야 즉 도서관학, 서지학 및 정보학분야의 학위논문 30편(박사 15편, 석사 15편)과 일반논문 30편을 합한 60편의 논문 속에 인용된 문헌의 수를 정리하면 표 1에 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편의 인용한 문헌 중에 인용된 문헌의 수는 2,929건이며 가장 많은 문헌을 인용한 문헌은 정보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으로서 (518편, 17.7%) 논문 1편당 평균 인용문헌수는 103.6건이다. 도서관학분야의 석사학위논문은 총 144편(4.9%)이며 논문 1편당 인용 문헌수는 28.8건으로 인용률이 가장 낮다. 대체로 석사학위논문 작성시에 인용하는 선행연구 문헌들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과의 관계

| 구 분 | 인용문헌 | | 인용한 문헌 | | 인용된 문헌 수 | |
|------------------|--------|---------|--------|-------|----------|-------|
| | 분 야 | | 수 | % | 수 | % |
| 학 위 사 | 박 사 | 도 서 관 학 | 5 | 8.3 | 461 | 15.7 |
| | | 서 지 학 | 5 | 8.3 | 413 | 14.1 |
| | | 정 보 학 | 5 | 8.3 | 518 | 17.7 |
| | | 소 계 | 15 | 25.0 | 1,392 | 47.5 |
| 논 문 사 | 석 사 | 도 서 관 학 | 5 | 8.3 | 144 | 4.9 |
| | | 서 지 학 | 5 | 8.3 | 315 | 10.8 |
| | | 정 보 학 | 5 | 8.3 | 192 | 6.6 |
| | | 소 계 | 15 | 25.0 | 651 | 22.2 |
| 합 | | 계 | 30 | 50.0 | 2,043 | 69.8 |
| 일 반 논 문 | | 도 서 관 학 | 10 | 16.7 | 296 | 10.1 |
| | | 서 지 학 | 10 | 16.7 | 304 | 10.4 |
| | | 정 보 학 | 10 | 16.7 | 286 | 9.8 |
| | | 소 계 | 30 | 50.0 | 886 | 30.2 |
| 총 | | 계 | 60 | 100.0 | 2,929 | 100.0 |

총 2,929건의 인용된 문헌 중 서지학에 1,032건(35.2%), 정보학에 996건(34.0%), 도서관학에 901건(30.8%)이 인용되어 세 분야간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 인용된 문헌 2,929건 중 학위논문 속에 인용된 문헌이 2,043건(69.8%)으로 학위논문이 현저하게 많은 선행연구 문헌을 인용하며, 일반논문은 886건(30.2%)으로 학위논문보다 타문헌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2는 문헌 1편당 인용문헌 수를 보여 준다. 11편에서 40편까지의 문헌을 인용한 논문이 26건(4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41편에서 71편까지의 문헌을 인용한 논문이 19건(31.7%)이다. 인용한 문헌 1편당 평균 인용문헌 수는 48.8편이다. 논문 1편당 가장 많은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도서관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으로 201건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표 2〉 논문 1편당 평균 인용문헌 수

| 인용편수 | 도서관학 | | 서지학 | | 정보학 | | 계 | |
|----------|------|-------|------|-------|------|-------|------|-------|
| | 수 | % | 수 | % | 수 | % | 수 | % |
| 10편이내 | - | - | 3 | 15.0 | 1 | 5.0 | 4 | 6.7 |
| 11~40편 | 11 | 55.0 | 6 | 30.0 | 9 | 45.0 | 26 | 43.3 |
| 41~70편 | 7 | 35.0 | 5 | 25.0 | 7 | 35.0 | 19 | 31.7 |
| 71~100편 | 1 | 5.0 | 6 | 30.0 | - | - | 7 | 11.7 |
| 101~130편 | - | - | - | - | 1 | 5.0 | 1 | 1.6 |
| 131편이상 | 1 | 5.0 | - | - | 2 | 10.0 | 3 | 5.0 |
| 총 계 | 20 | 100.0 | 20 | 100.0 | 20 | 100.0 | 60 | 100.0 |
| 평균 | 45.1 | | 51.6 | | 49.8 | | 48.8 | |

(2) 학위논문과 일반논문과의 인용률 비교

인용된 문헌 중 학위논문의 인용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3에서 인용된 문헌 총 2,929건을 학위논문과 일반문헌으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인용

〈표 3〉 인용된 문헌의 종류

| 분야 | 인용문헌종류 | 학위논문 | | 일반문헌 | | 계 | |
|------|--------|------|-------|-------|-------|-------|-------|
| | | 수 | % | 수 | % | 수 | % |
| 도서관학 | 학위논문 | 24 | 14.7 | 581 | 21.0 | 605 | 20.7 |
| | 일반논문 | 6 | 3.7 | 290 | 10.5 | 296 | 10.1 |
| | 소계 | 30 | 18.4 | 871 | 31.5 | 901 | 30.8 |
| 서지학 | 학위논문 | 49 | 30.0 | 679 | 24.5 | 728 | 24.9 |
| | 일반논문 | 4 | 2.5 | 300 | 10.5 | 304 | 10.4 |
| | 소계 | 53 | 32.5 | 979 | 35.4 | 1,032 | 35.2 |
| 정보학 | 학위논문 | 69 | 42.3 | 641 | 23.2 | 710 | 24.2 |
| | 일반논문 | 11 | 6.7 | 275 | 1.0 | 286 | 9.8 |
| | 소계 | 80 | 49.1 | 916 | 33.1 | 996 | 34.0 |
| 총계 | 학위논문 | 142 | 87.1 | 1,901 | 68.7 | 2,043 | 69.8 |
| | 일반논문 | 21 | 12.9 | 865 | 31.3 | 886 | 30.2 |
| | 소계 | 163 | 100.0 | 2,766 | 100.0 | 2,929 | 100.0 |
| | 평균 | 2.7 | | 46.1 | | 48.8 | |

된 전체 문헌 중 학위논문의 수는 163편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아주 낮은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학위논문을 많이 인용한 순위로 보면 정보학분야가 49.1%이고, 다음이 서지학분야(32.5%), 도서관학분야(18.4%)의 순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위논문 속에 발표된 학위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1%이고, 일반논문 속에 인용된 12.9%보다 월등히 높다. 분야별 인용률을 보면 정보학분야가 4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문헌은 인용된 총문헌수에서 인용된 학위논문수를 제한 것으로서 학위논문의 인용현황을 증점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문헌을 유형별로 세분하지 않았다.

〈표 4〉 인용된 학위논문의 학위별 분포

| 학위논문 분야 | 석사학위논문 | | 박사학위논문 | | 계 | |
|------------|--------|-------|--------|-------|-----|-------|
| | 수 | % | 수 | % | 수 | % |
| 도 서 관 학 | 22 | 18.0 | 8 | 19.5 | 30 | 18.4 |
| 서 지 학 | 36 | 29.5 | 17 | 41.5 | 53 | 32.5 |
| 정 보 학 | 64 | 52.5 | 16 | 39.0 | 80 | 49.1 |
| 총 계 | 122 | 100.0 | 41 | 100.0 | 163 | 100.0 |
| 평 균 | | 74.8 | | 25.2 | | |

표 3에서 얻어진 인용문헌의 종류를 다시 세분하여 표 4에서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률을 비교하였다.

인용된 학위논문 163편중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이 74.8%(122편)으로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률 25.2%(41편)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석사학위논문의 인용률은 정보학분야가 52.5%로 가장 높고,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률은 서지학분야가 4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논문 1편 속에 인용된 학위논문 편수

표 5는 163편의 인용된 학위논문이 1편의 논문 속에 몇 편씩 인용되어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분야 연구

자들이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을 저술할 때 1편에서 5편까지의 학위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29건(48.3%)으로 가장 많으며, 논문 1편당 평균 학위논문 인용건수는 2.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위논문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23건(38.3%)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지학분야는 조사대상 20건중 학위논문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논문이 10건(50.0%)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학위논문 인용현황을 보면 정보학분야가 평균 4.0건으로 가장 많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학위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논문도 정보학분야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총 28건이 인용되었다.

〈표 5〉 학위논문의 인용회수

| 분야 논문편수 | 도서관학 | | 서지학 | | 정보학 | | 계 | |
|------------|--------|-------|-----|-------|-----|-------|-----|-------|
| | 수 | % | 수 | % | 수 | % | 수 | % |
| 인용없음 | 8 | 40.0 | 10 | 50.0 | 5 | 25.0 | 23 | 38.3 |
| 1~5편 | 11 | 55.0 | 6 | 30.0 | 12 | 60.0 | 29 | 48.3 |
| 6~10편 | 1 | 5.0 | 2 | 10.0 | 1 | 5.0 | 19 | 31.7 |
| 11~15편 | — | — | 2 | 10.0 | — | — | 2 | 3.3 |
| 16~20편 | — | — | — | — | 1 | 5.0 | 1 | 1.7 |
| 21편이상 | — | — | — | — | 1 | 5.0 | 1 | 1.7 |
| 총 계 | 20 | 100.0 | 20 | 100.0 | 20 | 100.0 | 60 | 100.0 |
| | 평균 1.5 | | 2.7 | | 4.0 | | 2.7 | |

(4) 인용된 학위논문의 주제분야

인용된 학위논문의 주제가 어느 분야의 것인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표시되었다.

여기서 문헌정보학분야의 세 주제분야인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 중 어느 분야의 논문을 인용하여도 세분하지 않고 “문헌정보학분야”로 통합하여 표시하였으며 그밖의 분야는 타분야에 표시하였다. 인용된 학위논문 중 75.5%가 자기분야인 “문헌정보학”의 논문이었으며, 이는 김용성이 학문분야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한 연구¹²⁾에서 철학분야 논문이 인용한 문헌 중 75.0%와 사회학분야 논문이 인용한 논문 중 77.5%가 자기분야 논문이라고 한 사실과 거의 일치되는 결과이다.

분야별로는 정보학분야가 95.0%로 자기분야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타분야 학위논문에 대한 이용도는 서지학이 54.7%로 가장 높다. 이는 서지학분야의 특징적 현상이며 인용된 타분야 논문의 주제는 사학, 동양철학, 불교학의 순이다.

〈표 6〉 인용된 학위논문의 주제분야

| 전공여부 분야 | 문헌정보학분야 | | 타분야 | | 계 | |
|------------|---------|------|-----|------|-----|-------|
| | 수 | % | 수 | % | 수 | % |
| 도 서 관 학 | 23 | 73.7 | 7 | 23.3 | 30 | 18.4 |
| 서 지 학 | 24 | 45.3 | 29 | 54.7 | 53 | 32.5 |
| 정 보 학 | 76 | 95.0 | 4 | 5.0 | 80 | 49.1 |
| 총 계 | 123 | 75.5 | 40 | 24.5 | 163 | 100.0 |

(5) 인용된 학위논문의 연령분포

인용된 학위논문의 발표 후 경과연수에 따라 이용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표 7에 그 연령별 분포를 표시하였다. 발표후 경과연수가 5년이내인 학위논문의 인용률이 전체 49.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연구자들이 최근에 발표된 학위논문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표된지 10년이내의 학위논문 인용이 74.9%로 전체 인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정보학분야에서 최근년도에 발표된 학위논문의 이용률이 65.0%로 현저하게 높다. 이 65.0%에 해당하는 정보학분야의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보면 발표된지 1년미만의 학위논문이 21.2%, 2년미만의 학위논문이 40.4%, 3년미만의 학위논문이 63.5%로 발표된지 3년미만의 학위논문이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이어(C.J. Boyer)의 연구¹³⁾에서 학위논문이 발표된 지 2~3년내에

12) 김용성(1990). "학문분야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p.43-50.

13) C.J. Boyer(1973). Ibid. p.12-14.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학위논문의 수명이 평균 2.7년이라고 한 사실과 유사한 결과이다.

표 7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위논문의 인용빈도를 살펴 보면, 발표후 16년에서 20년정도가 지난 학위논문의 인용빈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지학의 경우는 16년 이상된 학위논문의 인용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학위논문이 계속 가치를 지님을 알 수 있다.

〈표 7〉 인용된 학위논문의 발표후 경과연수

| 분야 \ 경과연수 | 도서관학 | | 서 지 학 | | 정 보 학 | | 계 | |
|-----------|------|-------|-------|-------|-------|-------|-----|-------|
| | 수 | % | 수 | % | 수 | % | 수 | % |
| 5년이하 | 11 | 36.7 | 18 | 34.0 | 52 | 65.0 | 81 | 49.7 |
| 6~10년 | 6 | 20.7 | 18 | 34.0 | 17 | 21.2 | 41 | 25.2 |
| 11~15년 | 10 | 33.3 | 9 | 17.0 | 6 | 7.5 | 25 | 15.3 |
| 16~20년 | 3 | 10.0 | 5 | 9.4 | 5 | 6.3 | 13 | 8.0 |
| 21년이상 | - | - | 3 | 5.6 | - | - | 3 | 1.8 |
| 총 계 | 30 | 100.0 | 53 | 100.0 | 80 | 100.0 | 163 | 100.0 |

〈표 8〉 인용된 학위논문의 발표국별 분포

| 분야 \ 발 표 국 | 한 국 | | 외 국 | | 계 | | |
|------------------|---------|-----|-------|----|------|-----|-------|
| | 수 | % | 수 | % | 수 | % | |
| 도 서 관 학 | 학 위 논 문 | 18 | 60.0 | 6 | 20.0 | 24 | 80.0 |
| | 일 반 논 문 | 6 | 20.0 | - | - | 6 | 20.0 |
| | 소 계 | 24 | 80.0 | 6 | 20.0 | 30 | 100.0 |
| 서 지 학 | 학 위 논 문 | 49 | 92.5 | - | - | 49 | 92.5 |
| | 일 반 논 문 | 4 | 7.5 | - | - | 4 | 7.5 |
| | 소 계 | 53 | 100.0 | - | - | 53 | 100.0 |
| 정 보 학 | 학 위 논 문 | 63 | 78.8 | 10 | 12.5 | 73 | 91.3 |
| | 일 반 논 문 | 5 | 6.2 | 2 | 2.5 | 7 | 8.7 |
| | 소 계 | 68 | 85.0 | 12 | 15.0 | 80 | 100.0 |
| 총 계 | 학 위 논 문 | 130 | 79.8 | 16 | 9.8 | 146 | 89.6 |
| | 일 반 논 문 | 15 | 9.2 | 2 | 1.2 | 17 | 10.4 |
| | 합 계 | 145 | 89.0 | 18 | 11.0 | 163 | 100.0 |

(6) 인용된 학위논문의 발표국

연구자들의 문헌이용과 그들의 언어배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위논문 이용에도 당연히 그런 관계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과 외국 학위논문의 이용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 표 8이다. 인용된 전체 학위논문 중 국내에서 발표된 것이 89.0%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국내 학위논문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외국학위논문의 인용은 11.0%에 지나지 않는다. 인용된 외국학위논문 18편 중 12편이 정보학분야에서 인용되고, 도서관학분야에서 6편이 인용되고 서지학분야에는 외국 학위논문의 인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용된 외국학위논문 18편 중 16편(88.9%)이 학위논문 속에 인용되고 단지 2편(11.1%)만이 일반논문 속에 인용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저술할 때 학위논문을 어떻게 이용하며, 인용한 학위논문의 인용빈도, 주제분야, 간행후 경과연수, 발표국 및 학위논문을 인용한 문헌의 종류 등을 밝힐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세 주제분야인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분야의 학위논문과 일반논문 속에 인용된 학위논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자가 연구논문 저술시 인용하는 학위논문은 전체 인용문헌의 5.6%에 불과하다.

(2) 학위논문은 주로 (87.1%) 학위논문 속에 인용되고, 일반논문 속에 인용된 학위논문은 전체의 12.9%에 지나지 않는다. 학위논문의 종류별 인용률은 석사학위논문(74.8%)이 박사학위논문(25.2%)보다 더 많이 인용된다.

(3) 연구자들이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을 저술할 때 1편에서 5편까지의 학위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논문 1편당 평균 인용학위논문은 2.7건이다.

(4) 인용된 학위논문 중 대부분(75.5%)은 자기분야에서 발표된 것이며, 타분야의 논문은 전체의 24.5%에 불과하다.

(5) 연구자들은 최근에 발표된 학위논문 인용을 선호하며, 발표후 3년미만의 학위논문이 전체 인용학위논문의 63.5%를 차지한다.

(6)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국내 학위논문을 이용하며,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이 인용된 전체 학위논문의 대부분(89.0%)을 차지한다. 인용된 외국학위논문의 대부분(88.9%)이 학위논문 속에 인용되고 단지 11.1%만이 일반논문 속에 인용된다.

참 고 문 헌

1. 김용성(1990). “학문분야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민기남(1986). “학위논문의 관리에 관한 연구 ; 국내 종합대학교 도서관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3. 사공 철 ; 구자영 ; 김석영(1989). “과학기술문헌정보론”. 서울 : 구미무역.
4. 손문철(1988). “석·박사 학위논문 관리에 대한 제문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5. 윤병태(1984). “대학도서관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국립대학 도서관보, 2집. p.1-20.
6. 윤희운(1987).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수집방안”. 도서관학논집, 제 14 집, p.217-240.
7. 최달현 ; 변우열(1985). “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 도서관학논집, 제 12 집, p.161-198.
8. Bottle, R. T. (1973). “Scientists, Information Transfer and Literature Characteristics”, Journal of Documentation, p.281-294.
9. Boyer, C.J. (1973). “The Doctoral Dissertation as Information Source”. Metuchen : Scarecrow.
10. Davinson, D.(1977). “Theses and Dissertations as Information Sources”. London : Clive Bingley.
11. _____ (1981). “Bibliographic Control”. London : Clive Bingley. p.101-109.
12. Grogan, D. (1982). “Theses and Research in Progress”. London : Clive Bingley.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Theses and Dissertations as Information Source

In-Sook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ses and dissertations cited in research literature, particularly subjects, age, origin, and frequency of use of them, and kinds of papers that cite them. The theses and dissertations cited in the journal articles and theses and dissertations in the fields of library science, information science and bibliography are analysed in this study. The major conclusions made in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 (1) Theses and dissertations form 5.6% of the total citations.
- (2) 87.1% of the cited theses and dissertations are found in theses and dissertations and 12.9% in journal articles.
- (3) Most of research papers cite less than six theses and dissertations. The average number of theses and dissertations cited in a research paper is 2.7.
- (4) Most of the cited theses and dissertations are found in research papers from their own field and 24.5% in those from other fields.
- (5) Researchers prefer to cite recently produced theses and dissertations. 63.5% of the total citations are those produced within three years in the past.
- (6) The theses and dissertations form most part(89.0%) of the total citations. 88.9% of the cited foreign theses and dissertations are found in theses and dissertations, and 11.1% in journal articles.

* Instructor,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sung University.